

보도 일시	2022. 12. 13.(화) 09:00	배포 일시	2022. 12. 13.(화) 09:00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책임자	과장 이관표 (044-203-2851)
		담당자	사무관 김세진 (044-203-2852)

꼭 방문해야 할 한국관광지 100곳을 한눈에

-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발표, 6회 연속 14개소, 최초 33개소 등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한국관광 100선'으로는 유적지, 건축물, 유원시설 등의 문화 관광 자원 61개소, 숲, 바다, 습지 등 자연 관광자원 39개소가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4개소, 강원권 10개소, 충청권 13개소, 전라권 17개소, 경상권 28개소, 제주권 6개소로 지역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두근두근 새내기 '한국관광 100선' 서울숲, 창원 여좌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등 33개소 선정

이번에 처음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관광지는 총 33개소이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서울숲, 흐드러진 벚꽃이 매력적인 창원 여좌천 등 지역의 자연 명소뿐 아니라 산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익산 왕궁리유적, 야경이 아름다운 통영 디피랑 등 주요 도시의 문화관광 명소도 첫 진입에 성공했다.

서울 5대 고궁, 제주올레길,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석굴암 등 오래, 자주 볼수록 아름다운 14개소 6회 연속 선정

한국의 살아있는 역사와 전통을 함축한 서울 5대 고궁,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걷는 제주올레길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석굴암 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관광지 14개소는 6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

전문가 심사와 거대자료 분석으로 대표 관광지로서 매력과 성장 가능성 평가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은 ▲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 지자체 추천 관광지, ▲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후보지 235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관광학계와 여행업계 관계자, 여행기자·작가 등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했으며, 이동통신사,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누리소통망(SNS) 거대자료를 선정 평가에 활용했다.

국내외 관광객 대상 공세적인 홍보마케팅 추진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을 대상으로 공세적인 마케팅을 지원해 전 세계에 ‘관광매력 국가’ 한국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특히 선정지 일부를 한국관광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트래블 헌터-케이(K)*’에 구현해 전 세계 청년(MZ)세대가 온라인에서 한국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가 개최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도 ‘한국관광 100선’ 홍보관을 운영하고 ‘한국관광 100선’ 시범 여행 체험행사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방송, 누리소통망 등)로 홍보 영상을 송출해 한국 관광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파할 계획이다.

* ‘트래블 헌터-케이’: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공간에 주요 한국 관광지를 게임형 콘텐츠로 구현, 한국 여행권, 여행 기념품과 같은 콘텐츠로 실제 한국 관광을 유도

또한 국내외 여행자가 언제 어디서든 ‘한국관광 100선’에 대한 정보를 얻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전국 관광안내소, 교통거점[공항, 고속철도 KTX)]에 ‘한국관광 100선’ 지도를 비치하고, 관광 정보 제공 누리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을 통해 100선 선정지의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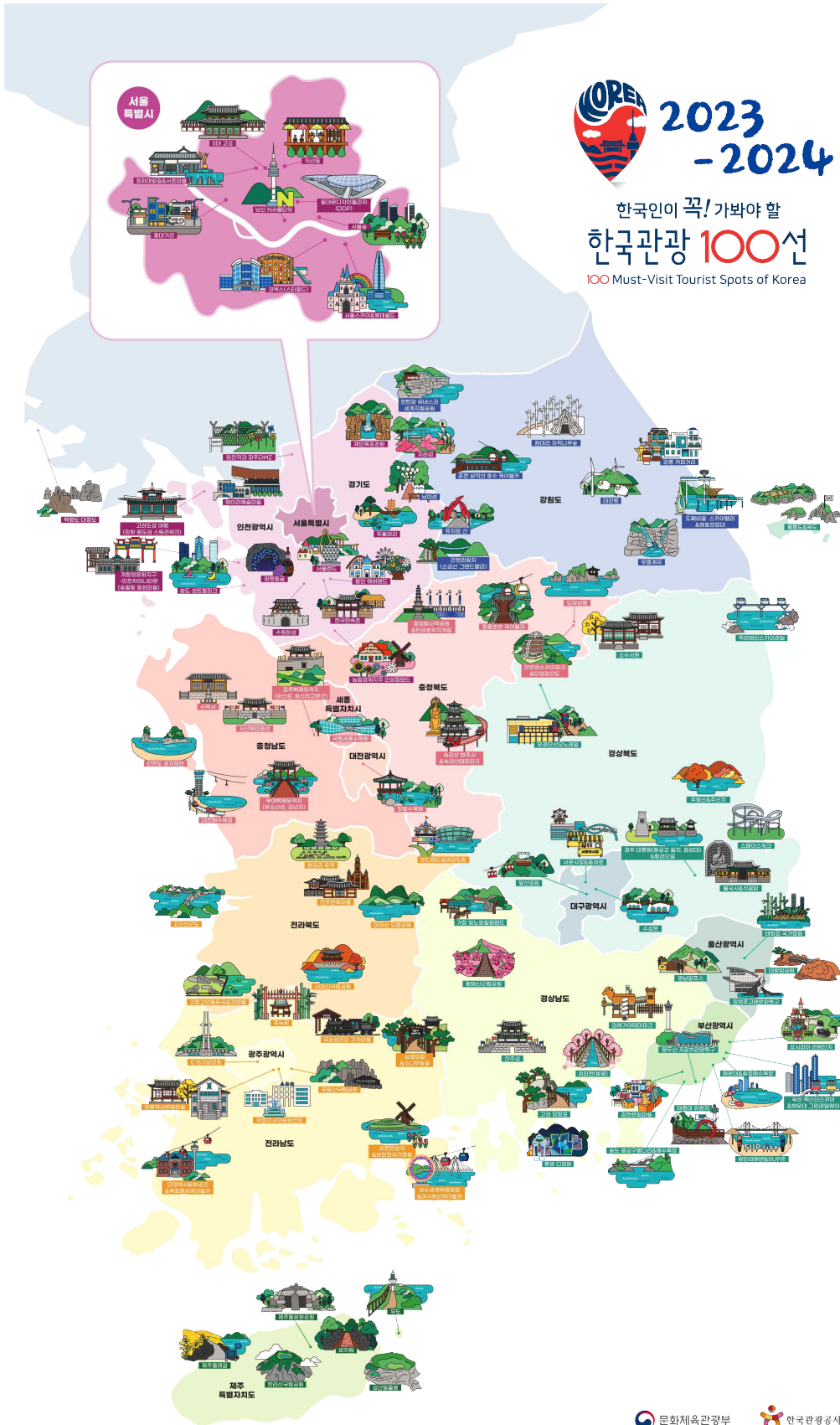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관광 100선’ 정보는 국문 외에도 영어, 일어, 중어(간체자, 번체자) 등 외국어로도 번역해 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참가하는 각종 박람회, 관광 행사 등에서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문화(케이컬처)를 살펴볼 수 있는 관광명소부터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지까지 매력적인 한국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며, “전 세계인들에게 ‘가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나라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도록 ‘한국관광 100선’을 알려 지역과 함께 한국 관광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최종 선정지
- 2.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지도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책임자	과장 이관표 (044-203-2851)
		담당자	사무관 김세진 (044-203-2852)
<공동>	한국관광공사 국내관광마케팅팀	책임자	차장 오유나 (033-738-3412)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100 Must-Visit Tourist Spots of Korea